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 - Q방법론적 접근 -

최혜정* · 이종화** · 정혜경*** · 권성복****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살행동은 연령, 성, 인종 혹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Min, 2005). 자살은 도발적,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끊으려고 시도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Kang, 2010).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 중 자살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비행, 자살 등의 심리 행동적 문제는 청소년 자신의 문제인 동시에 가족과 학교,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Woo & Kim, 2011)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은 계속 상승하여 2010년도 통계청 연령별 사망원인에서 자살이 1위로 보고 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2006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에서는 청소년 71,404명 대상 중 23.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의 경우

5.5%로 보고 되었다(Kang, 2010)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생애주기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장 및 학습발달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 동안에 수행해야 할 새로운 발달과업은 개인의 방어기전을 자극하여 새로운 대응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성장을 돕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기전을 만드는데 실패할 경우 퇴보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사소한 좌절이나 실패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포기로 나타날 때는 정신질환의 문제로 볼 수 있다(Kim, Kim, & Jang, 1999). 특히 청소년 자살에 있어 가장 공통적인 요인은 의미 있는 관계의 상실 및 결핍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의 자살은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이며 반드시 죽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자살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Kim, 2001).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가 교육부로 제출 받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학생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764명의 초·중·고생이 자살하였으며 이중 고등학생이 전체의 68.3%인 522명으로 집계되었다. 고등학생들의 자살이 많은 이유는 이 시기가 성장과 발달

*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eunice0924@hanmail.net)

** 군산간호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중앙대학교 병원 교육담당 과장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11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6일

을 급속하게 거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이므로 스트레스가 많고 자아의 발달이 미숙할 뿐 아니라 우울증, 행위 장애, 물질남용 등의 선행 정신질환들이 호발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Song, 1998) 그 밖에 성적부진, 대화를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의 부재, 잦은 입시제도의 변화 등 학업 환경의 변화, 선생님과의 갈등 및 가정생활 등이라 볼 수 있다(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5; Lee, Shin, & Lee, 2006).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 등은 과거의 자살이 주로 철학적인 이유나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의 자살은 충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투신이나 분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자살 방법이 교환되고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자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as cited in Lee, Kweon, Kim, & Choi, 2007).

자살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외적 자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되고 있다(Hong & Jeon, 2005; Min, 2005; Park & Jung, 2002).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빈번하게 바뀌는 입시정책의 혼란과 일류대학의 진학이 곧 인생의 출세로 받아들이는 현실에서 참기 어려운 긴장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빠져 나와야겠다는 수단의 선택을 자살행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매년 수능시험 후 끊임없이 보도되는 수험생 자살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의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연구한 Kim(1963), 실업계 및 인문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연구한 Kim, Kim과 Jang(1999),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 예측 요인을 연구한 Lee, Shin과 Lee(2006)등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살을 개인적이고 비사회적인 것으로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자살은 많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문제의 결과이기도 해서 높은 관심 속에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사실은 WHO 건강의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은 주관성의 과학화에 기초를 제공한 일종의 철학적, 심리적, 통계적 그리고 계량적 도구로 인간 행위의 주관성의 관찰과 측정에 있다. 특히 주관성에 대한 이해통찰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Q방법론이다. 이는 행위자 관점에서 출발하여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형성된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여(Kim, Kim, & Nam, 2001) Q방법론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자살 문제는 삶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가족, 학교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Kim & Jun, 2000)이므로 자살에 관한 태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자살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목적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관한 주관성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갖고 있다.

- 1)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을 파악한다
- 2)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2. 표집 방법

1) Q - 표본의 구성

concourse 추출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자살에 대하여 가지는 전반적 느낌, 견해, 태도,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얻기 위하여 선행논문, 자살과 관련된 문헌, 기사 등을 통한 자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심층면담은 S지역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취지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질문 내용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살은 자신과 가족,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Q-모집단은 총 15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의 명확성과 중복 여부, 타당성을 고려한 후 간호학과 교수 3인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통해 최종 37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 P - 표본의 구성 및 Q-분류

본 연구대상(P-표본)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써 본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Q-분류가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37명을 임의 표출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조사 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율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동의를 구하였다. Q-분류는 대상자에게 진술문 카드와 조사표를 주고 연구자의 설명에 따라 적극찬성(9점)에서부터 적극반대

(1점)에 이르기까지 카드를 분류토록 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P-표본으로 표집 된 37명에 대한 자료를 data file로 입력시켰다. 자료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 및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의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3.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유형이 42.64%, 2유형이 6.57%, 3유형이 4.45%였다(Table 1). 3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제 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계수가 다른 유형간의 상관관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Table 2). 연구대상자는 제1유형이 20명, 제2유형이 11명, 제3유형이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 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3).

Table 1.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s	15.7771	2.4299	1.6483
Variance(%)	.4264	.0657	.0445
Cumulative	.4264	.4921	.5366

Table 2. Correlations among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Type 2	.645	1.000	
Type 3	.639	.577	1.000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유형 : 혐오형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of P-sample (N=37)

Type	Subject no.	Factor weight	Grade	Gender	Religion	Suicide drive experience
Type 1 (n=20)	18	2.7317	2	F	None	No
	36	2.5268	3	M	Protestant	No
	1	2.1134	2	F	Catholic	No
	28	1.8056	2	F	None	No
	13	1.6555	3	M	None	Yes
	24	1.6263	3	M	Protestant	No
	31	1.4463	3	F	Buddhism	No
	10	1.4028	2	F	Catholic	Yes
	25	1.4003	3	M	Protestant	No
	7	1.1759	1	M	Protestant	Yes
	33	0.9289	3	M	None	No
	32	0.9142	3	M	Buddhism	No
	6	0.8332	2	M	Catholic	No
	30	0.8112	3	F	None	No
	22	0.7934	2	F	Protestant	No
	35	0.7798	3	M	Buddhism	No
	16	0.6905	3	M	Buddhism	No
	3	0.6766	2	M	Catholic	Yes
	34	0.5958	3	F	Protestant	No
	37	0.5257	3	M	Protestant	No
Type 2 (n=11)	29	1.2294	2	F	None	Yes
	5	1.1599	2	F	None	No
	9	1.0871	2	F	None	Yes
	11	1.0585	3	F	Catholic	Yes
	8	0.9722	2	F	None	No
	21	0.8762	2	F	Protestant	Yes
	20	0.8204	2	F	Protestant	Yes
	19	0.7518	3	M	Catholic	Yes
	2	0.7478	2	M	Protestant	No
	17	0.7189	2	F	Catholic	Yes
4	0.6147	2	F	None	No	
Type 3 (n=6)	26	1.2678	3	M	Catholic	Yes
	15	1.1711	2	F	None	Yes
	27	0.9339	3	M	None	No
	14	0.7932	1	M	None	Yes
	23	0.6776	3	M	Catholic	No
	12	0.5416	3	F	Catholic	No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총 20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 1명, 2학년 7명, 3학년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이었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5명, 기독교 7명, 천주교 4명, 불교 4명이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명이였다.

유형 1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Z값=1.9)',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해서는 안 된다(Z값=1.7)', '자살은 가장 큰 불효이다(Z값=1.6)',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이다(Z값=1.5)', '자살은 최악이 않을 것이다(Z값=1.1)'였다. 반면 제 1유형이 가장 다(Z값=1.3)',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자살하지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살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Z값=-2.1)',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Z값=-1.7)', '자살은 평안한 세계로의 여행이다(Z값=-1.5)', '자살은 문제해결의 또 다른 방법이다(Z값=-1.4)', '자살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수단이다(Z값=-1.2)', '자살한 사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Z값=-1.2)', '자살은 주변사람들

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Z값=-1)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살은 죄악이다(Z값 차이=1.715)',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해서는 안 된다(Z값 차이=1.653)'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삶이 힘들 때는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된다(Z값 차이=-1.544)', '자살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Z값 차이=-1.185)'이었다(Table 4).

제 1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18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죄악이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불행하게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자살은 문제해결의 또 다른 방법이다'이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18명 대상자는 종교가 없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본인의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며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 18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죄악이다'이다. 면담 내용을 보면, 자살은 무책임하고 생각 없는 행위이며, 살아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그것을 못해 자살한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가까운 사람이 자살한 경험이 있는 18명 대상자는 가까운 사람이 자살했을 때 실망감, 절망감,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였으며 자살은 주변사람들에게도 못할 짓이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죄악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36명 대상자는 가족과 부모를 생각하면 자살은 가족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살은 깊은 생각보다는 감정적 충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청소년의 자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다른 대상자들도 청소년이 자살 했을 때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생명을 포기한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한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혐오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 score	Average	Difference
14	Suicide is a sin.	1.313	-.402	1.715
5	One should never commit suicide no matter what.	1.723	.070	1.653
33	Suicide is a courageous act.	-2.092	-.907	-1.185
1	I contemplate suicide when life gets tough.	-.530	1.015	-1.544
22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death	.802	-.991	1.793
2	I understand fully there who commit suicide.	.033	-1.286	1.318
14	Suicide is a sin.	-1.106	.807	-1.913
5	One should never commit suicide no matter what.	-.761	1.312	-2.073
1	I contemplate suicide when life gets tough.	1.491	.004	1.487
11	Acquaintances are more responsible for the suicide than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599	-.675	1.274
33	Suicide is a courageous act.	-.465	-1.721	1.255
34	Suicide is a medium for taking revenge on those who mistreated you.	-.076	-1.214	1.139
26	Sense of guilt felt by my family members will be significant if I commit suicide.	1.596	.554	1.042
17	The trend that belittles life may incite suicide even more.	-.823	.189	-1.012
25	Violent online games seem to increase suicide rate among the young people.	-1.371	-.277	-1.093
22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death	-1.221	.020	-1.241
32	One who attempted suicide runs a greater risk of trying again.	-1.028	.339	-1.367
31	Internet suicide site may incite suicide.	-1.364	.268	-1.632

제2유형: 상황 이해형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총 11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없고, 2학년 9명, 3학년 2명이었다. 이 중 남학생 2명, 여학생 8명이었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5명, 기독교 3명, 천주교 3명, 불교는 없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명이었다.

유형 2가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자살은 가장 큰 불효이다(Z값=1.7)', '자살은 현실도피행위이다(Z값=1.5)',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Z값=1.4)',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Z값=1.3)',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Z값=1.3)', '요즘은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Z값=1.1)', '자살은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Z값=1.1)'였다. 제 2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살은 평안한 세계로의 여행이다(Z값=-2.2)', '자살은 문제해결의 또 다른 방법이다(Z값=-1.9)',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막기 어렵다(Z값=-1.4)', '자살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Z값=-1.3)',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Z값=-1.3)', '자살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 수단이다(Z값=-1.2)', '자살은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Z값=-1.1)', '자살은 최악이다(Z값=-1.1)',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자살하면 자신도 자살할 가능성이 많다(Z값=-1)'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다(Z값 차이=1.793)', '자살한 사람을 부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Z값 차이=1.318)'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해서는 안 된다(Z값 차이=-2.073)', '자살은 최악이다(Z값 차이=-1.913)'이었다(Table 4).

이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29번 대상자는 종교가 없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본인의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며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 29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살은 가장 큰 불효이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이다.

면담 내용을 보면, 너무 괴로우면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하므로 자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 이해형'으로 명명하였다.

제3유형: 사회 책임형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모두 6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었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3명, 기독교 3명, 천주교와 불교는 없었다. 3명의 대상자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유형 3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항목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Z값=1.8)', '내가 자살을 하면 가족들의 자책감이 클 것이다(Z값=1.6)', '삶이 힘들 때는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된다(Z값=1.5)', '자살은 가장 큰 불효이다(Z값=1.4)',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할 용기는 없다(Z값=1.3)',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이다(Z값=1.1)',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Z값=1)'였다. 제 3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살은 문제해결의 또 다른 방법이다(Z값=-1.8)',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자살하면 자신도 자살할 가능성이 많다(Z값=-1.7)', '자살한 사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Z값=-1.4)',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이용이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Z값=-1.4)', '인터넷 자살사이트가 자살을 부추기는 것 같다(Z값=-1.4)',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다(Z값=-1.2)', '자살은 평안한 세계로의 여행이다(Z값=-1)', '불행하게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Z값=-1)',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재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Z값=-1)'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삶이 힘들 때는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된

Table 5.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s for Attitude toward Suicide

Type	Characteristics
Type1: abomination	One should never commit suicide no matter what suicides is sin
Type2: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death I understand fully there who commit suicide. Suicides may attempt regard to the causing factors
Type3: social responsibility	Society is more responsible for the suicide than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다(Z값 차이=1.487)’, ‘자살한 사람보다는 다른 주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Z값 차이=1.274)’, ‘자살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Z값 차이=1.255)’, ‘자살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 수단이다(Z값 차이=1.139)’, ‘내가 자살을 하면 가족들의 자책감이 클 것이다(Z값 차이=1.042)’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가 자살을 부추기는 것 같다(Z값 차이=-1.632)’,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재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Z값 차이=-1.367)’,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다(Z값 차이=-1.241)’,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이용이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Z값 차이=-1.093)’,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자살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다(Z값 차이=-1.012)’이었다 (Table 5).

이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26번 대상자는 종교가 천주교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본인의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며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 26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살은 가장 큰 불효이다.’,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이다.’이다. 면담 내용을 보면, 본인은 힘들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하였고, 자살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청소년 자살은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은 불안한 시기이므로 자살충동도 자주 느끼니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억압하고 강요하기 보다는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청소년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많이 언급하였으므로 ‘사회 책임형’으로 명명하였다.

IV. 논 의

자살의 개념은 민족, 인종, 그리고 심리적인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 민족 내에서도 정치사회, 문화적, 종교적인 특성 등에 의해서 마치 다른 인종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ange et al., 1999). 자살은 자살행위, 자살시도, 자살생각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자살률은 대개 그 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정신보건에 대한 철학 및 목적은 국가가 자살에 대해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어떤 신념으로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계획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자살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신빙성 있고 타당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등학생들의 자살 관념, 즉 자살 사고와 자살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태도, 자살과 관련된 문화적 신념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는 3개의 유형으로 혐오형, 상황 이해형, 사회 책임형이었다.

제 1유형인 혐오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살은 가장 큰 불효이자 최악이고, 심지어 자살은 무책임하고 생각없는 행위이며 자살한 고등학생들은 생명을 포기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만드는 생명존중의 가치관과 가족 및 타인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존중이란 말 속에는 이미 생명체를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생명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하고 내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생명존중의 개념은 인종, 성별, 나이, 학

력, 장애, 범죄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Oh, 2006). 자살에 대해 대상자들의 태도를 연구한 선행논문으로는 Kim(1963)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자살에 자기자신을 반응, 절대불찬, 조건부찬의, 모르겠다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혐오형과 개념이 같은 절대불찬의 태도를 보인 남자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7%, 여고생의 경우 48.3%였다. 실업계와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Kim, Kim, & Jang(1999)은 연구대상자들이 자살을 윤리적으로 죄악시하고 정신장애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자살은 민족, 인종 그리고 문화적 적응의 관점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각 하위그룹 간에 관습, 지역적 위치, 가치관과 규범 등에 따라 자살에 대한 사고, 느낌과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계 미국인보다는 남, 녀 모두 자살률이 일반적으로 더 낮다고 한다. 그것은 문화 차이, 특히 유교, 불교, 도교 등 종교와 철학적 관점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죽음을 매우 개인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상호관계의 맥락, 즉 가족 혹은 가문의 수치, 당황스러운 일들을 위엄 있게 해결하는 상황 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Range et al., 1999).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동양권 철학의 영향은 물론 부모에 대한 효의 당위성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태도의 기본으로서 효행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살을 적극 반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존중 개념과 효행을 가르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효 교육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Ro, 2005), 특히 국제화 시대에 느끼는 도덕 가치 부재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윤리 원리인 효를 실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 2유형은 상황 이해형으로 자살은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유형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을 하므로 자살행위는

충분히 가능하고, 자살은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자살사고는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우울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 중 스트레스가 가장 효과가 높은 요소이다(Park, 2007). 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으며(Hong & Jeon, 2005) 자살사고가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관련된 행동 요인 및 예측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우울, 스트레스, 음주, 흡연, 약물남용, 성, 학교, 건강상태, 비판, 행복감, 성적 등으로 보고 되었는데(Park, 2008) 이는 제2 유형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자살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모형이나 우울 및 충동 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Peck, 1985), 자살을 시도한 대상자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했으며,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와의 갈등, 외모에 대한 불만, 이성문제, 선생님들과의 갈등이었다(Im & Jung, 2002; Park & Shin, 1991).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은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갈등이나 다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자살생각에 대처하는 도움 대응행위를 비교해보면 자살생각을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도움 대처행위의 수가 적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도 낮았으며, 대응행위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Im & Jung, 2002). 또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이성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진학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즉 자살사고나 자살시도에 있어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원의 정도나 스트레스원의 지각이 중요하며 개인의 대응행위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시절은 변화가 많은 격동기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취과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반면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은 급격하게 붕괴되는 취약성이 있고,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감지하며 더욱이 고등학생들의 자살은 죽으려는 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다 사회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현실 도피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많다(Sung, Lee, Chun, & Joung, 1996). 우리나라가 IMF 위기 상황 중 일 때 전체 고

등학생의 68.2%가 자살이란 때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동반자살에 대해서도 50%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는데(Ro & Song, 2002), 이는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 자살사고는 물론 동반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특정 스트레스원의 종류와 심각성, 대응행위의 종류나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자주 체크하고 상담해주는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특히 남, 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고와 지각, 대응 행위 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3유형은 사회 책임형으로 이 유형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청소년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삶이 힘들 때는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되며, 자살한 사람보다는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자살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다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수단이 되는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점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증오와 복수에 의한 자살은 타인에 대한 살인소망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으로, 지나치게 강한 공격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하면 살인이 되고 양심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억제하면 우울이 되는데 그 공격심을 자신에게 돌릴 경우 자살하게 된다. 우울은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상태로(Choi, 2008; Lee, 2008; Park & Kim, 2000; Park, 2009) 학교폭력의 경우에 공격성향은 자살의 외부 표출 형태라고 할 수 있다(Park, 2007). 이 유형은 자살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책임을 돌리며 마음속에 증오심과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생 자살자 중 자살 동기는 충동성,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다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 등이다(Ro & Song, 2002).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는 부모, 교사, 친구 중에 부모의 인정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자살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식들에 대한 희생과 투자가 지나쳐서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청소년들은 심한 부담감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심하면 자살충동을 일으킨다. 또한 우울증은 자살행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상태로 고등학생들은 우울한 정서가 자살생각과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한 기분이나 분노감, 좌절 등의 정서적 요인이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 자살충동자와 자살자들의 글, 낙서, 유서 등에 나타난 자살충동의 요인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억압감, 증오심과 복수심 등이었고(Ro & Song, 2002) 살 의도를 높이는 변수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적 요인으로 어려운 일 당면 시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 가족적 요인으로 부모 결혼상태에 결손이 있거나 가족간의 대화가 폐쇄적인 경우, 사회적 요인으로 자살사이트를 알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접속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음주나 약물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이었다(Ra, 2006).

사회 책임형은 자살자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살이 단일요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개인이 속한 사회의 태도와 불리한 외부환경, 가정 내의 복잡한 변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 3유형에 대한 자살예방 전략으로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심을 갖는 것이 최선책이며 이를 위해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연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위 세 가지 유형에 속한 모든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긍정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자살을 가장 큰 불효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살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살은 의지가 약하거나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상당수의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반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한편으로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상시의 태도는 특정 상황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특성상 신체, 정신, 정서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를 겪고 과격하고 극단적이며 충동적인 행동, 자아 중심적 상상 등으로 현실 왜곡이나 가치관의 혼란 등을 겪으며 아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 개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형성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살을 반대하는 데 그 기저에는 효의 윤리성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겨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생명존중과 효행원리의 실천적 교육방안의 마련과 함께 청소년의 충동성과 자살사고가 자살시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스트레스 위험군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연관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과 정신보건 실무현장에서의 실천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하여 청소년 자살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한 조사연구이며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된 항목들을 종합 분석하여 최종 37개의 Q표본 진술내용을 도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고등학생 37명을 임의 표출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고, 분류된 자살에 대한 태도유형은 혐오형, 상황 이해형, 사회 책임형 등 3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3.7%였다.

제1유형은 '혐오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받드는 생명존중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제2유형은 '상황 이해형'으로 자살은 너무 괴로울 때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제3유형은 '사회 책임형'으로 자살은 자살자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보복수단이 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

한 태도 유형별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혐오형'의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에게는 생명존중 개념과 효행의 윤리원리를 교육하는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며, '상황 이해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남, 녀 성 차이에 따른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 책임형'에 속하는 대상자를 위해서는 자살시도가 가능한 고위험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연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류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자살예방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고등학생들의 자살 태도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자살 태도 측정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둘째, 자살태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지역과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연구 대상자들에게 비교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Choi, H. J.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depression, fatigue, BMI, and health locus of control between urban and rural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2), 224-236
- Hong, Y. S.,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 125-149.
- Im, S. B., & Jung, C. S. (2002). A comparison of stressors and coping behavior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suicidal ideation vs. those who do not.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2(2), 254-264.

- Kang S. O.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juvenile's on suicide th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 Kim, J. H., Kim, B. J., & Jang, D. W. (1999). A study about suicidal attitude and self-image in adolescent school girls m-focused on industrial and cultural women's high school faction. *Korean Journal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0(2), 220-235.
- Kim, C. E. (1963). Suicide among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1), 44-56.
- Kim, K. W., & Jun, M. H. (2000). Study on the teenage suicide, *Journal of Korean Society Child Welfare*, 9(1), 127-152.
- Kim, M. A., Kim, H. E., & Nam, S. H. (2001). Perception types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Q methodolog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13(2), 327-339.
- Kim, S. J. (2001). *Adolescent growth, development and nursing care*. Seoul. Soomoonsa.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0). *2010 Death and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Retriveed June 22, 2011, from <http://www.kosis.k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5). The Suicide of adolescents: Protection & counsel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66.
- Lee H. I. (2008).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1), 97-107.
- Lee, H. Y., Shin, H. S., & Lee, K. S. (2006).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4(1), 49-62.
- Lee, J. S., Kweon, Y. R., Kim, S. J., & Choi, B. S. (2007). The effect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6(4), 337-347.
- Min, Y. G. (2005). Evaluation on suicidal risk factors and suicidal through of the college stud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1, 31-52.
- Oh, S. G. (2006).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suicidal attitudes, suicidal risk, and needs of life-esteem education particip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E.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8(3), 465-473.
- Park, H. N., & Kim, M. J. (2000). Health promoting lifestyl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college femal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4(2), 318-331.
- Park, H. S. (2007).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7(6), 835-843.
- Park, K. B., & Shin, M. S. (1991).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1), 298-314.
- Park, S. Y. (2009). A study on depression, ADL, IADL, and QOL among low incom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1), 78-90.
- Park, Y. J., & Jung, H. K. (2002). Relationship between stress, ways to cope,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entrance examine. *Th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1), 43-61.
- Peck, M. L. (1985). Crisis intervention

- treatment with chronically and acutely suicidal adolescents, in M.L. Peck, N.L. Farberow & R.E. Litman(Eds.), *Youth suicide*. New York: Springer.
- Ra, H. J. (2006). *Factors influencing the impulse of suicide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Range, L. M., Leach, M. M., McIntyre, D. Posey-Deters, P. B., Marion, M. S., Kovac, S. H., Banos, J. H., & Vigil, J. (1999).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uicid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4), 413-430.
- Ro S. O. (2005). Hyo practice plan research.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Nonmoongyp*, 7, 1-14.
- Ro, S. W., & Song, Y. M. (2002). Analysis of the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drive. Chun-Buk University,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Kyoyooknonchong*, 22, 67-90.
- Song, D. H. (1998). A suicide of the adolescent and the role of the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he School Health, 11*(2), 151-153.
- Sung, D. H., Lee, H. S., Chun, R. S., & Joung, Y. S. (1996). The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suicide-attempters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6), 1366-1375.
- Woo C. Y., & Kim, P. H. (2011).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219-240.

Types of Attitude toward Suicide in High School Students: A Q-Methodology Approach

Choi, Hye Jung(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Lee, Jong Hwa(Full-time Lecture, Kunsan College of Nursing)

Jung, Hae Kung(Chung-Ang University Hospital, Nursing Team Manager)

Kwon, Sung Bok(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Purpose: The rate of suicide is rising most rapidly among high school students. Teenage suicide is no longer just a personal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lassified high school students concerning in South Korea with an aim of identifying suicidal ideation and types of teenage suicide. **Method:** A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in suicidal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A Q-sample was collected from in-depth and objective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A P-sample consisted of 37 high school students : selected Q-samples were sorted on a 9-point scale. **Results:** Three types of suicidal attitudes were evid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 abomination(Type 1),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type 2), and social responsibility(type 3). **Conclusion:**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should be formulated according to the types of attitudes toward suicide in south Korea.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Attitude